



특허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7.(목) 09:00	배포 일시	2022. 3. 17.(목) 08:30
담당 부서	심사품질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호조 (042-481-5955)
		담당자	서기관 이선희 (042-481-5693)

특허청에 심사속도보다 심사품질 강화해 달라

- 특허청, '심사품질 설문조사' 결과 17일 발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심사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다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 분야 36개 항목, 상표·디자인 분야 10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 * 조사기간: '21.6.~'21.12., 주관기관: 케이디엔(KDN)리서치
 - * 응답자: (특허) 출원인 306명, 대리인 52명, (상표·디자인) 출원인 304명, 대리인 50명
- '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특허분야는 68.8점으로 '20년 69.7점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반면, 상표·디자인 분야는 72.9점으로 '20년 69.1점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였다.
-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인 '한정된 여건이라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는 37%로,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p 앞섰다. '품질과 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37%였다.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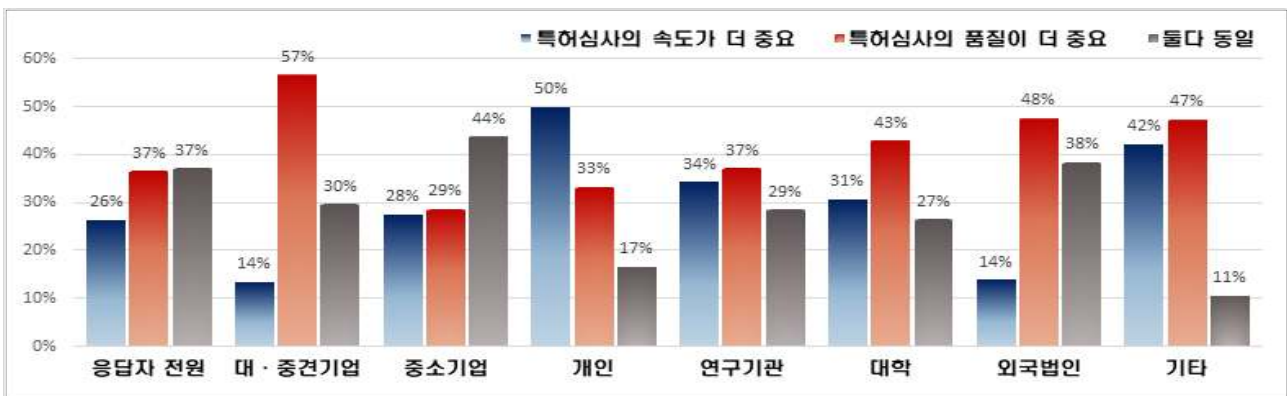
-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20년의 77.3% 보다 10.3% 포인트(p) 높았다.
-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 빠른 심사 속도 ▲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미·중 기술전쟁, 국내 지식재산 금융의 급성장 등으로 지식재산의 품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심사 품질 교육을 강화하고 하나의 출원을 여러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심사품질 수준평가 및 분석 보고서 전문은 3월말부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참 고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주요 내용

□ 특허심사의 속도 VS 특허심사의 품질

○ 동일한 심사환경에서 특허심사의 속도와 특허심사의 품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5단계 척도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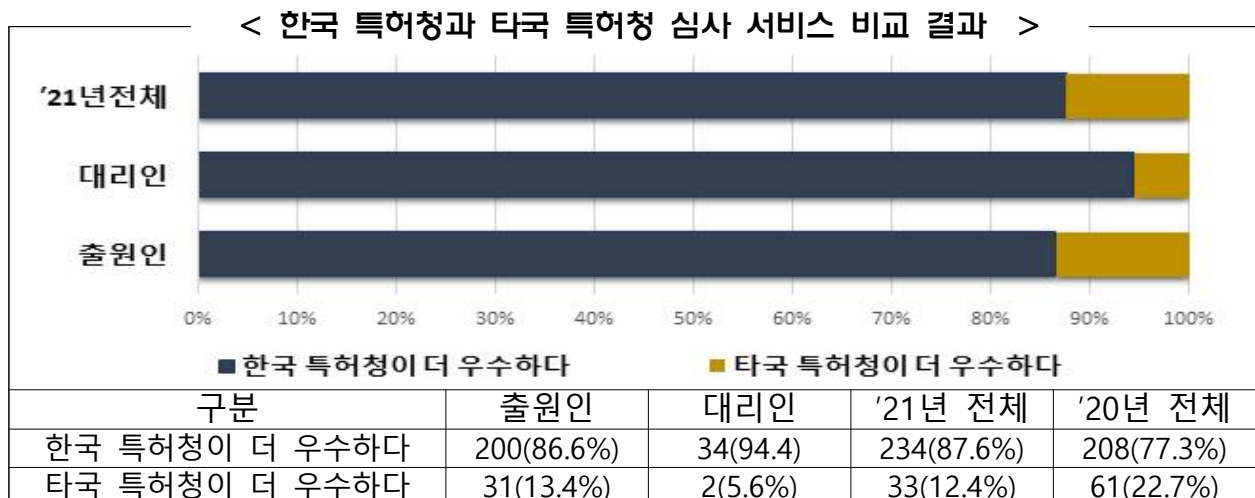
* 5단계 척도: ①속도가 매우 중요, ②속도가 다소 중요, ③둘 다 동일, ④품질이 다소 중요, ⑤품질이 매우 중요



* 특허심사의 속도가 더 중요(①+②), 특허심사의 품질이 더 중요(④+⑤)

□ 한국 특허청 VS 타국 특허청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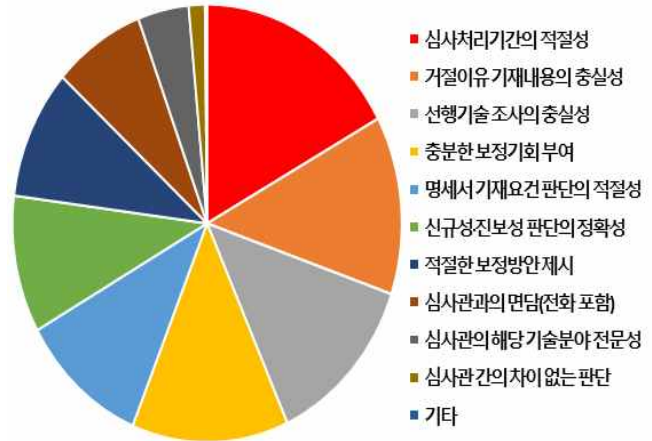
○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에 비하여 심사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20년의 77.3%보다 10.3%p 높아짐



- 우리청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심사처리기간의 적절성'으로, 심사처리기간은 여전히 우리청의 큰 장점으로 작용

< 우리나라 특허청이 타국 특허정보다 우수한 이유 >

구분	전체
심사처리기간의 적절성	101(17.1%)
선행기술 조사의 충실성	78(13.2%)
거절이유 기재내용의 충실성	77(13.0%)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정확성	77(13.0%)
적절한 보정방안 제시	63(10.6%)
충분한 보정기회 부여	60(10.1%)
심사관과의 면담(전화 포함)	57(9.6%)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의 적절성	45(7.6%)
심사관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성	25(4.2%)
심사관 간의 차이 없는 판단	8(1.4%)
기타	1(0.2%)
합계	592



* 우수한 이유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며, 중복응답을 모두 합산

□ 최근 3년간 상표·디자인 종합평가 항목별 만족도 점수

구분	'21년		'20년	'19년
	만족도	순위	만족도	만족도
상표·디자인 전반적인 심사품질 만족도	72.9(▲3.8)	1	69.1	66.4
최근 1년 대비 상표·디자인 전반적인 심사품질 정도	64.6(▲3.5)	5	61.1	65.1
특허청의 심사품질 관리 상태	항목제외			66.0
심사관과의 면담(방문 또는 전화)이 적절성 및 도움 정도	68.1	3	-	-
등록·부등록요건 판단의 적절성	66.0(▼1.1)	4	67.1	65.6
상표·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64.3(▲0.7)	6	63.6	64.8
심사관들의 판단기준의 일관성	50.6(▼8.0)	7	58.6	59.1
상표·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68.4(▲2.3)	2	66.1	65.5
상표·디자인 만족도 평균점수	65.0(▲0.7)	-	64.3	64.6

□ 최근 3년간 특허·실용신안 종합평가 항목별 만족도 점수

구분		'21년		'20년	'19년
		만족도	순위	만족도	만족도
전반적 심사 품질	특실 전반적인 심사품질 만족도	68.8(▼0.9)	2	69.7	69.5
	최근 1년 대비 특실 전반적인 심사품질 만족도	63.3(▼1.4)	10	64.7	68.4
(삭제)	특허청의 심사품질 관리 상태	항목제외			68.0
권리범위	전반적인 권리범위	54.8(▼0.3)	18	55.1	59.3
	최근 1년 대비 전반적인 권리범위	53.5(▼0.6)	20	54.1	58.0
무효가능성	무효 가능성	55.4(▼1.2)	17	56.6	56.8
심사처리 기간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58.2(▼2.1)	15	60.3	50.2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60.0(▼2.7)	13	62.7	54.8
	등록/거절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56.4(▼3.6)	16	60.0	52.3
전문성	심사관의 전문성 구비 정도	64.8(▼1.2)	7	66.0	63.8
출원인 편의제도	심사관과의 면담 제도	67.3(▼0.6)	3	67.9	64.9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64.3(▼2.2)	8	66.5	62.9
	보정방안의 적절성	64.9(▼2.0)	6	66.9	64.4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72.0(▼0.7)	1	72.7	68.1
	심사관 제시 문헌 가시성	67.1(▼2.2)	4	69.3	66.6
통지서 기재 명확성	기재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61.4(▼1.2)	11	62.6	59.5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65.2(▼2.5)	5	67.7	64.3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64.1(▲1.3)	9	62.8	61.8
거절이유 적절성	진보성 판단 등 거절이유 공감성	58.7(▲1.3)	14	57.4	57.0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60.4(▼0.2)	12	60.6	58.7
	기재불비에 대한 설명 충분성	54.8(▲3.9)	18	50.9	50.2
심사관 판단 편차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38.1(▼1.0)	23	39.1	37.4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44.5(▼1.8)	21	46.3	43.0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39.6(▲1.6)	22	38.0	37.7
특허·실용신안 만족도 평균점수		59.0(▼0.9)	-	59.9	58.2